

광주·전남 유통업계 하반기 총공세

매출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지역 유통업계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2일 신세계가 공개한 '2019년 2분기 실적'에 따르면 (주)광주신세계의 올해 상반기 총 매출은 18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16억원)보다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매출은 911억원으로 지난해(1092억원)보다 16.5% 떨어졌다. 1분기 매출 하락폭 -14.6%(2018년 1124억→2019년 959억)보다 격차는 더 벌어졌다. 2분기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보다 2억원 줄어든 112억원을 기록했지만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43억에서 249억원으로 2.4% 상승했다.

광주신세계 측은 매출 부진에 대해 지난 1월 이마트 광주점과 신세계가 분리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신세계의 이마트부분의 양도가액은 41억3700만원이었다.

올 2분기 광주신세계에서는 명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광주신세계, 프리미엄 생활 전문관 열고 가전 등 명품 전략 롯데백화점 광주점, 창립 기념 대대적 할인·사은행사 펼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명품(24% ↑), 화장품(2.9% ↑), 골프아동(0.7% ↑) 품목만이 매출이 올랐고 패션(-12.7%), 생활용품(-11.1%), 여성(-3.9%), 남성(-2.5%) 부문은 고배를 마셨다.

롯데쇼핑의 경우 사업 부문별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명암이 갈렸다.

올 2분기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주·전남지역 롯데아울렛 3곳은 지난해 대비 1.5%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광주·전남 9개 롯데마트 매출은 2% 떨어졌다. 롯데 측은 의류와 '토이저러스'(장난감 소매업체) 등 경쟁력이 약화된 부문의 매출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세계그룹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하는 이마트는 장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불황에 빠진 지역 유통가는 얼어붙은 소

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하반기 총공세를 펴 부를 전망이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3일 처음으로 프리미엄 가전 판매를 시작한다.

이날 매장 8층에는 2975㎡(900평) 규모 '프리미엄 생활 전문관'이 첫선을 보인다. 이곳은 삼성전자의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 LG전자 '오브제', 120년 전통의 독일 '밀레' 등 이른바 '프리미엄' 가전들로 채워진다. 또 이탈리아 명품 가구 '나무찌'와 덴마크 도자기 브랜드 '로얄코펜하겐', 독일 도자기 '빌레로이엔보흐', 스웨덴 주물 브랜드 '스켈솔트', '더 조션호텔' 등 가전·가구·주방·침구 부문에서 명품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신세계는 13년 만의 전관 개선타입의 하나로, 오는 11월 푸드 플라자와 같은 층에 전문 식당가를 조성한다.

롯데쇼핑은 개별 점포의 권한을 늘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PB(프라이빗 브랜드) 제품을 확대한다.

롯데백화점은 광주점은 이달 가전 전문관 1주년을 맞아 기획전 열고, 9월 광주점 창립기념일 등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할인·사은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월 호남충청지역 부서를 신설했다.

광주·전남지역 롯데마트는 점포 권한을 확대한 '자율형 점포'를 도입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상권에 맞춘 점포별 '시그니처'(대표) 상품을 만들고, 비규격 상품에 대한 가격 조정 권한을 부여해 '매일 신선한 상품을 진열하는 매장'으로 만들 방침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최근 매장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잇따라 생기면서 신혼부부와 이사 가족 등을 겨냥한 가전매장을 새로 기획하게 됐다"며 "내수 침체로 인한 실적 부진을 만회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42.29 (+4.54)	금리 (국고채 3년) 1.18 (0.00)
↑ 코스닥 594.17 (+4.13)	↑ 환율 (USD) 1216.20 (+5.70)

보해 복분자주 필리핀 시장 진출

6만 5280명 수출 계약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만든 보해복분자주 수출 계약에 이어 필리핀 시장에서도 수출 계약을 연달아 성사시키며 해외 판매망을 한층 더 넓히게 됐다.

지난 6일 유럽 11개국 본격 진출 소식을 알렸던 보해복분자주가 또다시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술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다.

보해양조는 8월 초 필리핀 현지에서 보해복분자주를 수출하기 위한 통관 절차 마무리 하고 9월 중 첫 물량을 선적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출될 물량은 보해복분자주 6만 5280명으로 컨테이너 5대 분량에 이른다.

필리핀은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곳으로 한국 주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의 소수가 진출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해는 이러한 시장에 뛰어들기 보다 구매력이 탄탄한 필리핀 중상류층과 중국인 화교,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고급주류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필리핀 현지 업체들은 보해복분자주가 정식으로 판매되기 이전에



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개별적으로 제품을 구해서 유통하고 있었다. 이번 필리핀 시장에 대한 공식 출시 역시 현지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성사되게 됐다.

국제 와인대회에서 올 상반기에만

세 차례나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입증한 보해복분자주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보해복분자주가 정식 출시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유통하는 형태로 소비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꾸준히 타게 되면서 정식 출시까지 성사됐다.

박찬승 홍보팀장은 "보해복분자주 유럽에 이어 인구 1억명의 필리핀 시장까지 본격 진출한 만큼 본격적인 매출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리아 No. 1 을 넘어서 월드 No. 1 이 될 수 있도록 보해복분자주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닥터헬기 소음은 생명 살리는 심장박동 소리”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릴레이에 참가한 송중욱(윗줄 가운데) 광주은행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고무풍선을 이용한 소음 정도를 비교하는 캠페인 홍보영상을 찍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송중욱 광주은행장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릴레이 동참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송중욱 은행장이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해 닥터헬기 인식 확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은 닥터헬기 소음 인식도 개선과 운영 확대 등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SNS를 통해 사회 각 분야 저명 인사들이 인식 확산을 위해 힘쓰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자택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한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고무풍선이 터질 때 나는 10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닥터헬기 이착륙 소리 크기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직접 풍선을 터뜨려 소음 정도를 들려주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으로 캠페인 홍보 영상을 진행했다.

송중욱 은행장은 "조그만 이해와 배려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

게 되었다"며 "닥터헬기가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리는 인식을 달리하면 소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 행장은 다음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주자로 황윤철 경남은행장과 장석용 전남도 교육감을 지목했다.

이번 캠페인 홍보 영상은 광주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인 광주은행TV(http://youtu.be/cPvhyobW7J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혼인 10년 내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가능하다 LH, 지원대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이번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자격을 혼인기간 10년 이내,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확대했다. 종전 혼인기간 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서 완화한 것이다.

신청자의 소득요건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에서 100% 이하(맞벌이 120%)로 완화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총 자산기준이 2억8000만원(자동차 2499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이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연합뉴스

8월 18일은 '쌀의 날' 광주기아챔스필드서 기념행사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시구 관객들에 경품 증정

오는 18일 '쌀의 날'을 맞아 광주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 경기가 열리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쌀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쌀미(米)를 八十八(8월18일)로 풀이해 이름 지은 '쌀의 날'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 5회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김원석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이 참가해 시민들에게 '쌀의 날'의 의미를 알리고 우리 쌀에 대한 관심과 소비

를 부각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에는 이장관이 시구자로 나선다.

농식품부와 KIA타이거즈 등은 우리 쌀 818kg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고 관객을 대상으로 식혜·그레놀리바 증정과 경품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경기 중 진행되는 사다리게임 당첨자에게는 쌀 60kg과 KIA타이거즈 기념품이 주어진다.

농협경제지주는 오는 15일까지 페이스 북 '맘팜' 페이지를 통해 추첨된 50명에게 경기 관람권 2매를 줄 예정이다.

김원석 사장은 "최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매년 문화행사와 연계한 쌀의 날 행사를 실시해 쌀 소비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